

한 역사가의 '넓고 깊은' 학문의 발자취

〈이기백 한국사학논집〉(전11권)의 간행을 보고

조인성

경희대 교수·사학

현재 한국사학계를 대표하는 학자 중의 한 사람인 이기백의 〈한국사학논집〉 11권이 출간되었다. 과거에 발표하였던 논저들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논집은 사론집 3권, 고대사 연구서 4권, 고려시대사 연구서 2권, 개설서 1권, 그리고 수상록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집의 내용은 이기백의 학문적 관심의 폭이 넓고 깊다는 것을 단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따라서 그의 한국사 연구성과를 간단히 정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사론집과 개설서를 중심으로 우선 다음과 같은 점을 언급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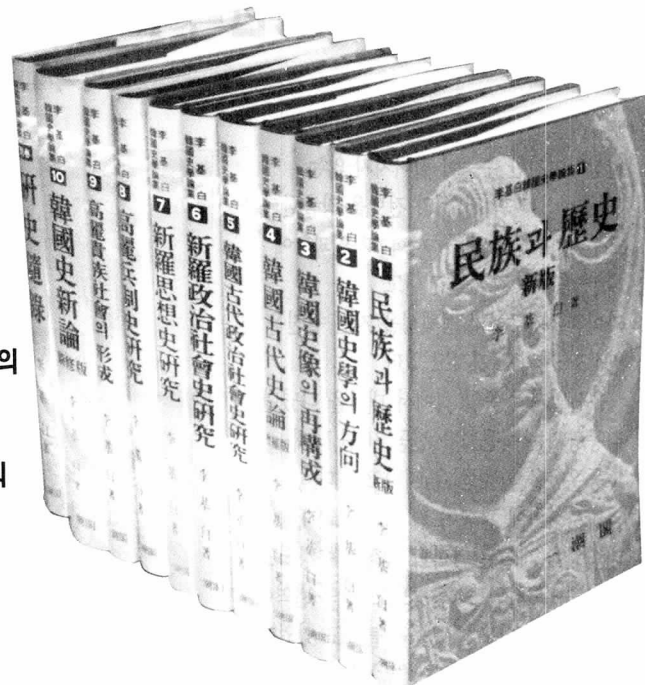
독자의 '올바른 한국사 이해'에 기여

이기백은 한국사 연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논집의 제2권인 《한국사학의 방향》(1978)을 비롯한 그의 사론집들과 수상록에 실린 여러 글들이 참고되거니와, 그는 역사를 움직여나간 인간집단에 대한 관심을 추구하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추구하고 그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사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



한국사 연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대표적인 한국사학자 이기백의 〈한국사학논집〉(전11권)은 그의 학문적 관심의 폭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기백 교수.



다. 이는 언뜻 상식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제도의 기원이나 변화의 고찰에 그치고 마는 예나 민족과 민중을 내세우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은 실정이고 보면 그가 제시한 연구방향은 큰 의의를 갖는 것이었으며, 여전히 매우 유효하다. 그것이 근대 한국사학의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신민족주의사관과 입장이 통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기백의 실제 연구가 자신이 제시한 연구방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논집에 포함된 연구서들도 그러하지만, 일반독자들에게 친숙한 제10권 《한국사신론》(1967, 개정판 1976, 신판 1990)도 역시 그러하다. 거기에서 그는 기왕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각 시대를 이끌어 나갔던 지배세력(주도세력)을 중심으로 역사

적 사실들을 체계화하였다. 나아가 지배세력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사를 시대구분하고, 한국사의 큰 흐름을 지배세력의 확대과정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이기백은 한국사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른 문제들을 중심으로 일반독자들의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세권의 사론집과 수상록에 실린 글들의 다수가 그러하거니와,

화제의 책

살아숨쉬는 서울의 참모습

김영상 지음 《서울 6백년》

살아 있는 서울의 역사와 자연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구석구석 살핀 《서울 6백년》이 완간됐다. 저자는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동아일보를 두루 거친 언론인으로 현재 서울문화사학회장과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고문을 역임하고 있는 김영상씨(80). 1959년 1월부터 한국일보에 연재한 연속 칼럼을 엮은 같은 표제의 책을 이미 89년에 처음 출간했고, 92년부터 속편으로 연재한 내용을 모두 모아 이번에 전5권으로 완간했다.

1권에는 수도 서울건설의 역사, 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에 얽힌 희비극의 역사, 광화



문 근정전, 경회루 등 경복궁의 주요 전각들, 북악 인왕산, 무악 기슭에 얽힌 풍습과

일화 등이 담겨 있다. 2권은 주로 남산의 내력과 산기슭에 얽힌 일화의 소개를 담았다. 남산은 원래 목멱산인데 일명 인경산이라고도 불리는 것을 각종 문헌을 통해 고증해 밝힌다. 남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인 릴레이식으로 소식을 전하던 다섯 봉수대의 내력도 흥미롭다. 남산 기슭에 있는 청학동 주자소 균역청 남소영과 취금헌 집터, 유성룡 집터, 이덕형 집터 등 남산 구석구석에 서려 있는 사연들도 전한다.

창덕궁과 종묘 주산인 북산 응봉 기슭의 내용을 주로 담은 3권에는 풍류의 궁궐이면서 장희빈과 사도세자의 비극이 어려 있는 창경궁의 내력, 응봉기슭의 관상대, 향교동의 조광조 집터, 홍선대원군의 구름재 운현궁 등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숨결을 전한다. 1만여년의 굴곡 많던 서울의 참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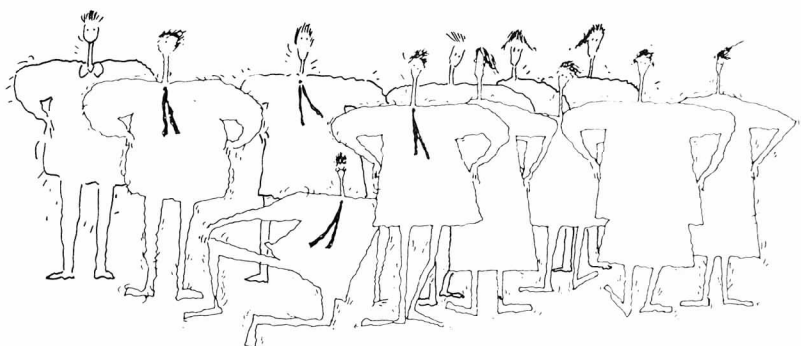
4,5권은 속편 연재칼럼을 모은 것으로 이번에 처음 책으로 묶인 내용. 4권은 작산

성균관 청계천 종루거리 덕수궁을 다룬다. 대궐놀이를 즐기던 성균관 대학생들, 명륜당 앞뜰의 늪은 은행나무, 성균관 동쪽 개울가에 있던 금헌 김유이의 글방 등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일대의 이야기나, 서울의 좌청룡 작산에 얽힌 풍수지리설, 다리뱀기 연날리기 풍습이나 거지들의 움집터, 아낙들의 빨래터, 어린이의 팽이치기 제기차기 놀이터 등 도성 한복판을 흐르던 청계천 주변의 흘러간 이야기도 아련하다.

고대부터 우리민족 문화의 중심 발원지로 자리했던 한강과 한강유역 일대는 제5권에 담았다. 우뚝솟아 솟아 흐르는 남한강, 금강산 만폭동굴에서 비롯하는 북한강 등 자연환경과 선인들이 읊은 시문을 통해 한강의 도도한 역사를 전하고 있다. 각권마다 실린 각종 그림과 사진 전적들은 살아 있는 역사현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부록의 '찾아보기'는 자료의 충실함을 더한다. 대학당/A5신/각 340면 내외/각 8000원

한국출판사의 자존심을 지키자!

세계 여러나라 출판사와 당당히 겨뤄 자랑스런
포인트·라인이 되겠습니다.



POINT LINE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열두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디어
색다른 눈
감각
그리고
●
결작

안녕하십니까?
일러스트레이션 전문회사
포인트라인입니다.
포인트라인에서는
픽쳐북, 표지일러스트와 카렌다, 카드
참고서, 교과서등 다양한 작업을 해왔으며
모든 광고 또한 색다른 시각으로
기획,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의 일러스트 기법으로는
종이 입체 일러스트나 수채화, 유화,
지점토, 모래그림등 기타 기법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유아들 대상의 출판과 아동출판
기획을 자신있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열두명과
우수편집팀, 아이디어맨으로
구성된 포인트라인
앞으로 최고만을 고집할 것입니다.

“한 매 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시행에는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 표지 디자인 · 본문 디자인 · 카달로그 · 사보



서울 도봉구 방학1동 712-13 백운B/D3층
TEL : 3492-0091~2, 956-9234~5
FAX : 3492-0192, 956-9236

제1권 《민족과 역사》(1971, 신판 1994)에
서는 일제의 식민주의적 한국사관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을 담은 글들과 그로 인해 우
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한국사의 모습을 바
로잡으려고 한 글들이 눈길을 끈다. 식민주
의적 한국사관의 폐해는 해방 후 우리 학계
와 사회가 시급히 청산해야 할 과제였던 것
이다.

제3권 《한국사상(韓國史象)의 재구성》
(1991)에 수록된 글들 중에서는 이른바 재
야사학자들의 국수주의적 한국사 인식에 대
한 비판을 담은 것이 특징적이다. 그들은
한때 한국사학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영
향력을 행사하였다. 이기백은 학문으로서
의 한국사학을 지키고 시민들의 올바른 한
국사 인식을 위하여 그에 맞섰던 것이다.
그가 소위 민중사학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
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다.

착하고 의로운 역사인물에 애정

이기백은 고조선시대로부터 통일신라 말
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사회사상 등 고대사
전반에 걸쳐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중
곧 소개할 신라사 관련 저서에 실려 있는
글들 외에 계몽적인 성격의 것들은 주로 제4
권 《한국고대사론》(1975, 증보판 1995)에,
학술적인 성격의 것들은 주로 제5권 《한국
고대정치사회사연구》(1996)에 수록되어 있
다. 그러므로 《한국고대사론》은 일반독자
들에게 한국고대사의 다양한 국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제6권 《신라정치사회사연구》(1996)와 제
7권 《신라사상사연구》(1986)는 제목이 말
하여 주는 바와 같이 신라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사상에 관한 글들을 모아 놓은 것이
다. 전자는 상대등이나 시중을 역임한 인물
들에 관한 단편적인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지배세력을 기준으로 귀족연합-전제
주의-귀족연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상을 밝
힌 것이다. 인물 분석방법은 그후 연구의
선구가 되었으며, 그 시대상은 정설화되어
있다. 후자에서는 불교의 수용을 왕권과의
상호관계에서 파악하고, 정토신앙을 신자
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관련하여 고찰함으

로써 그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유교
적 정치이념의 성장을 주로 6두품과 관련하
여 이해하였다. 이점에서 후자는 전자와 짝
을 이루고 있거니와, 그가 내린 결론 역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 특정한 시
기에 살던 특정한 인간들이 어떤 사상의 어
떤 국면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한 그의 추구는 이후 사상사 연구의 하나
의 방법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7권 《고려병제사연구》(1968)는 지방의
농민들이 교대로 상경하여 중앙군을 구성하
였으리라는 이전까지의 통설에 대해 의문을
 품고 관련자료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하
여 군반씨족(軍班氏族)에서 중앙군 소속 군
인들이 배출되었음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
만 이 연구가 제도의 규명에만 그친 것이
아니어서 그는 군인이라는 신분층을 통해서
고려 전기의 정치와 사회의 일면을 설명하
고 있다. 군반제설은 발표 직후부터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아직도 그
불씨는 남아 있다. 제8권 《고려귀족사회의
형성》에서는 고려가 호족연합정치가 행하
여지던 호족의 시대를 거쳐 문벌귀족사회로
이행하였음을 다각적으로 구명하고 있다.
그중 고려초 호족연합정권설에 대해서는 일
부 논자들의 반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체로 그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인
정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논집의 별권인
《연사수록(研史隨錄)》(1994)이다. 사론에
해당하는 글도 여럿 찾아볼 수 있지만 인생
론이랄까 하는 성질의 글들이 눈길을 끈다.
〈이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그야말로
권력과 부와는 관계가 없으면서도 착하고
의롭게 살았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
거니와, 그들에 대한 이기백의 따뜻한 애정
과 존경은 독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할 정
도로 큰 감동을 준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전적인 글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그를 통해서 이기백
인생관과 그의 사학의 배경을 엿볼 수 있
거니와, 담담한 필치로 씌어진 회고담은 독자
들로 하여금 한 위대한 역사가가 걸어온 발
자취를 더듬어볼 수 있는 색다른 감동의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